“사찰, 장애인과의 접근성 높여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사회활동이 어떤 이유로도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도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불교계 어떤 준비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A(45 · 여)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A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목욕 장면을 사진촬영 한 것. A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건이 묵인될 수 없게 됐다. 제28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법령이 4월 11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다.

장차법은 총 50조에 3개의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장애인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 ·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 부성권, 성 등 가족 ·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노력이 컸다. 2002년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등이 협력해 만든 이 단체는 긴 투쟁끝에 2007년 3월 장차법 제정을 국회에 통과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법령 시행 하루 전인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유는 ‘장차법의 실효성 쟁취’를 위해서였다. 이들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될 경우 주 업무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하루 전까지도 당초 약속했던 행정인력 20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하루 전날임에도 (확정된) 시행령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이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조항이 상당부분 가위질 당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종단 차원서 구체적 금지 조항 내용 조사 필요
사찰·총무원 ‘장애인의무고용문제’ 논의 시급

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이 장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물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의 시행 의미가 사회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차별당해 온 장애인들이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이 법에 대해 주지하고 있어야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생활 속에서 어디까지가 장애인차별인지 그 확실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에서도 4월 21일까지 ‘진정인단’을 모집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교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장차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단 차원에서 장차법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해 각 시설은 물론 종무원 및 사찰 종사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장차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위법행위로 간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 모두 해당된다. 장애인들이 사찰을 찾고자 할 때 사찰에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법회에서 수화 등의 장애인 통역이 없는 경우도 장애인차별이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협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이용시설의 경우는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지침서가 내려오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시설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어낸 법이라 엄청난 효과가 클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교계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의무고용문제로 장차법을 바라보았을 때 개별 사찰, 총무원 등이 여기 걸릴 수 있다”며 “불교계 전체에서 이에 대한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차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

1. 공공기관 주최 · 주관 행사(법 제21조 2항)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사법 · 행정서비스(법 제26조)
공공기관에서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은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이용과 참여를 위해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 · 구속상태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참정권의 보장(법 제27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 ·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 정보전달, 장애 유형이 고려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 고용(법 제11조~12조)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규정(채용, 승진 등)에 추가적으로 정년 · 퇴직 · 해고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채용 전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를 받지 않으며, 직무상 필요한 의학적 검사시에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재화 · 용역 제공의 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 · 용역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 박탈를 박탈할 수 없음.

6. 토지 및 건물 매매 · 임대의 차별금지(법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소유 · 관리자는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금지함.

7. 금융상품 ·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법 제17조)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할 수 없다.

8. 시설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법 제18~19조)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와 함께 시설물에 진입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은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조견 · 장애보조기구를 반입 · 이용할 수 있고 그를 이유로 불리한 요금을 적용받지 않음.

9. 정보통신 · 의사소통(법 제21조 3항)
방송사업자 등은 제작물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 큰 문자, 화면읽기 · 해설 · 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함.

10.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차별금지(법 30조)
장애인이란 이유로 양육권, 친권을 제한 · 박탈하지 않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 생활 중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일해 ‘베테랑’이 되면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그 존경심은 더해지기 마련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오래 일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에.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나 귀하다.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50·사진) 관장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소중한 존재다.

“불교사회복지 전문인 될 것”

⑲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 관장

“우리 선배님들도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부끄럽습니다.”

쑥스러운 한 마디가 괜히 던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온 당당함이 있다. 지난해 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상식에서 불교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 관장이다.

박 관장이 불교사회복지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졌던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누구나 청소년 시절에는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죠. 저는 그 때 정관 스님을 모시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소시켰어요.”

박 관장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사회적으로도 불교계에서도 혼란기가 찾아왔다. 그 때 그는 불교가 현대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불교,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종교가 돼야한다 생각하게 됐다.

불교사회복지 연구·강의 여건 필요
‘1 사찰 1 사회복지기관 연계’ 시급

박 관장의 첫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어린이분야였다. 정관 스님을 대표이사로 사단법인 불국토가 1990년 설립되면서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만들어지고 불국토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사회복지에 투신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몇 해 던가. 세월이 흐르다보니 지금보다 더 좋은 불교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한 그의 고민도 깊어졌다.

“불교사회복지를 현대사회와 미래를 위해 학문적으로 연구 · 강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또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 특색에 맞는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를 광역시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단 생각이 들어요. ‘1사찰 1사회복지기관 연계’는 당장 시행돼야 하고요.”

참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구체적인 대답이 즉각 나온다. 그는 여기에다 “학교법인에서 교법사제도가 있듯이 불교사회복지법인에도 법사실을 운영해 직원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고 말한다. 역시 현장전문가는 다르구나 싶다.

그가 이렇게까지 불교사회복지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그도 불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현대사회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 업무를 통해 무수히 맺게 되는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불교사회복지를 위해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 틀림없는 박 관장. 그가 말한다, 불교사회복지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불교사회복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고 끊임없이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이 바탕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신행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해야만 불교사회복지 전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전문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글=김강진 기자, 사진=하성미 기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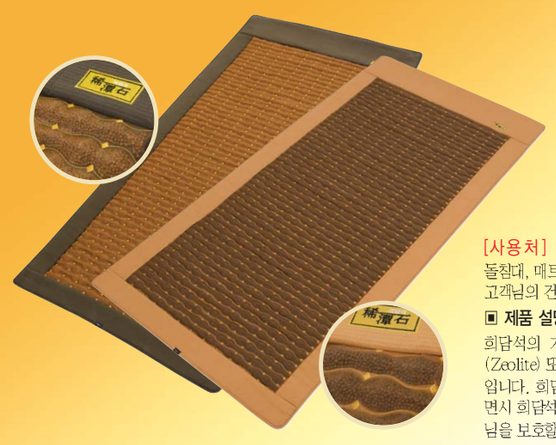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 탁원한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 기 : 1000mm x 2000mm · 무 게 : 11kg

[사용처]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제품 설명
희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온에서의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의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격 : 25,000원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방석을 원하세요?

희담석 방석
◆가격 : 45,000원 ◆크기 : 45cm x 45cm

[사용처]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자원넷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204호 T. 02)3476-2335

인터넷 www.jawonet.com 에서도 구입가능 (카드결제 3개월 무이자 할부) ▶제품상담 : 011-9230-2335